광양만권 외자 20억弗 투자유치 '올인'

광양경제청, 미주·유럽 등 연내 26회 기업 설명회

신소재·조선·해양·물류 관련 기업 유치 본격 나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나선다.

광양만경제청 최종만 청장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2012년 외국기업 투자유치 목표액을 20억 달러로 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광양만 경제청은 이달중 중국 상해와 태국 지역 해외 IR(Investor Relation·기업설명 활동)을 시작으로, 3월에는 일본 후쿠오카, 규슈 지역의 기계·부품 제조업체와 물류기업을 방문해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4월에는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규모의 해양플랜트 산업 전시회인 'OTC(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12'에 참가하는 등 연내 ▲중화권·일본 지역 12회 ▲미주·유럽지역 14회 등 총 26회의 해외 기업설명 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타깃기업으로는 마그네슘, 니켈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신기술·신소재 기업과 미래 투자가치가 높은 조선·해양·물류 관련 기업, 신재생 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기업이다.

이 밖에도 첨단 제조기업과 광양항 물동량 증대를 위한 물류기업, 국제적인 비즈니스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의료재단, 관광레저기업 유치 활동도 전개한다.

광양만 경제청은 지난 2010년부터 언어·경제권역별 투자유치조직인 미주, 유럽·중동, 중국, 일본팀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고 있으며, 기존 조직과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있어 높은 효율성과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종만 경제자유청장은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MPC율촌전력 등 대규모 투자유치로 목표액인 20억달러(한화 2조 2000억원)을 초과했다"면서 "올해도 광양만권 산업인프라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기업유치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어린이들 딸기 수확 체험

곡성군 곡성읍 '대신 정보화마을'을 찾은 어린이들이 딸기하우스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딸기 수확체험을 하고 있다. 대신정보화 마을은 지난 11일부터 5월 초순까지 '딸기따기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곡성군 제공〉

구례경찰,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멘토 됐어요

구례경찰서(서장 곽순기)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구례경찰서(서장 곽순기)는 지난 14일 대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경찰과 보안협력 위원간을 이웃으로 맺어주는 1:1 결연식을 가졌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결연한 경찰과 보안협력 위원은 주 한차례 이상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학교생활의 어려움과 고민을 상담하는 등 멘토(mento) 역할을 하게 된다.

이홍재 구례군 보안협력 위원장은 "매년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여수 쥐포' 지리적 표시 등록

순천 지식재산센터, 특허 출원 획득

여수 쥐포의 맛과 우수성을 특허청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순천 지식재산센터는 지난해부터 여수시와 매칭사업으로 '여수쥐포'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해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여수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는 '여수쥐포'라는 상표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여수지역에서만 독점적인 권리를 얻게 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자체의 자립기반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쥐포'는 손뜨기로 직접 제작되는 독특한 제작 방식과 여수시의 지리적인 특성의 해풍을 이용한 건조방식으로 맛이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모양이 두툼해 다른 쥐포들보다 맛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수시는 쥐포 이외에도 '거문도 해풍쑥', '돌산 갓김치'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해 출원 신청해 지역사업의 이미지 특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순천 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전통 지식재산산업 창출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행사와 더불어 다양한 축제의 문화컨텐츠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여수박람회 기간 '승용차 안타기' 예행 연습 돌입

이달 20일, 3월 12·20일, 4월 12·20일 '안타는 날' 지정

여수시가 박람회 기간중 '자가용 안타기' 시민 운동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예행 연습에 들어간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박람회 기간 중 '승용차 안타기' 시민운동 정착을 위해 시내버스 전 노선 무료 운행과 함께 '여수시민 승용차 안타는 날'을 지정 운영한다. 시는 이같은 캠페인을 박람회전 3~4월 12일과 20일에 실시해 박람회 기간중 교통혼잡을 시민운동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 여수시민이 자율적으로 승용차 대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하는 한편 운영당일 시청 등 관공서 주차장에 승용차 출입을 제한하고 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산업현장 교수단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지사장 문기표)는 올해부터 대한민국 산업인력 현장교수단 인력 풀(POOL) 구축·운용과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

산업현장 교수단은 올해 ▲상반기(2월) 500명 ▲하반기(7월) 12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 기준은 기술지원분야(명장·기능대회 입상자·기업 생산현장에서 우수한 기술·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경영지원분야(대기업 CEO 및 임원·경영컨설턴트·HRD전문가)로 구분 선정해 구성하게 된다.

현장교수단 희망기관은 지원신청서를 받아 기업조사 분석→특성화 고교·대학 현장실사→요구분석 등을 거쳐 지원절차를 수립해 오는 5월부터 교수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격 대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한국산업안전공단 콜린사업장, 노사발전재단 HRD사업장, 교수진 선발 분야와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학교 등이다.

문의(061-720-8550)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전 북

익산 벌꿀 농축 가공장 본격 가동

양봉농가 생산비 절감 기대

익산 벌꿀 농축 가공장이 지난 14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익산시와 익산시 양봉협회 영농조합법인(대표 김종화)은 각각 지원금 2억7000만 원과 1억6000만원 등 총 4억3000만 원을 투입해 양봉농가의 염원인 벌꿀농축 가공장을 완공했다.

가공장은 화분 반죽기와 저온 농축기를 갖춰 꿀벌에게 영양이 풍부한 화분을 공급할 수 있으며, 채밀시 수분함량이 22~27% 이상의 벌꿀을 20% 미만으로 농축시켜 벌꿀의 품질 고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농축 가공장의 가동으로 농축 가공비와 수송비 등 6000여만 원의 생산비 절감과 함께 타지역 농가들의 벌꿀 농축가공비 수입 등으로 1억5000여만 원의 추가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이한수 시장은 "앞으로 벌꿀과 프로폴리스, 로얄 젤리, 밀랍, 봉독 등의 봉산물 생산과 농작물의 화분매개에 이용해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농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지역 벌꿀 생산량은 지난해 130여 농가에서 34만kg을 생산해 51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농민혁명 고부 봉기 재연

동학 농민혁명의 기폭제가 된 고부 봉기가 지난 15일 농민군 최초 집결지인 정읍시 이평면 말목장터 등지에서 재연됐다. 고부봉기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맞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 1894년 음력 1월 고부 관아를 점령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연합뉴스

뉴스 브리핑

한국파견 日공무원들 군산 근대역사 문화 시찰

한국에 파견 나온 일본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16일 군산에 산재한 근대역사 문화유산을 시찰했다.

이번 방문단은 일본 구마모토현을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서 한국으로 파견 나온 교환공무원과 일본 지자체 국제화협회(CLAIR) 서울 소속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을 비롯해 신흥동 일본식 가옥, 동국사에 이어 새만금방조제 현장을 둘러봤다. 오니시 고이지로 일본 CLAIR 서울사무소 차장은 "군산에 일본의 건축물이 잘 보존되고 있어 놀랐다"며 "군산의 근대역사 건축물은 일본 관광객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남원보건소 치매 조기발견 의료비 지원 확대

남원시 보건소 (소장 최태성)는 올해 고령화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성 질환인 치매 조기발견과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시 보건소는 지난해 7000여명의 선별검사로 261명의 신규 환자를 발견해 등록관리 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8500여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태성 보건소장은 "치매는 조기에 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면 진행 억제시키고 발병률을 줄일 수 있는 질병"이라며 "선별검사와 정밀검진을 통한 치매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의(063-620-7962)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건보공단 정읍지사 20일부터 새청사서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지사장 황휘연)가 수성동 법원 앞에 새 청사를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새 사옥은 대지면적 2314㎡에 연면적 1164㎡(지상 2층) 규모로 고객편의를 위한 장애인 상담창구를 비롯해 시민 휴식공간·사무실·민원실 등을 갖췄다. 특히 태양광발전 시스템과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기를 설치해 녹색 친환경 사옥으로 건축,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에 적극 기여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고창군 목조건축 전문인력 양성 추진

고창군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지난 15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목조건축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군은 전북대와 협력해 국내 최고의 목조건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달부터 고창캠퍼스에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모집인원은 ▲한옥건축 30명 ▲경량 목조건축 30명 등 총 60명이다. 이번 무료교육은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실습위주로 진행된다. 문의(063-560-2346)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고창에 2만8000㎡ 규모 푸른숲 자연장 개장

고창군 신림면 세곡리 일원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등에 묻는 '자연장'(自然葬)이 조성됐다.

고창군은 지난 14일 이강수 군수와 이만우 군의장,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 푸른숲 자연장' 개장식을 가졌다.〈사진〉

군은 총 사업비 21억8000만원을 들여 부지 2만8000㎡에 6922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자연장을 조성했다.

군은 자연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위탁법인 공개모집을 통해 장묘전문 (사)고창노인사랑회를 선정했다.

자연장은 고창군에 본적을 두고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비롯해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사망일 전부터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사망한 사람의 유족, 관내에서 개장한 유·무연고 유골의 연고자로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가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료는 40년 기준으로 ▲잔디형 25만원 ▲수목형 30만원 ▲정원형 30만원이다. 문의(063-564-7852)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고품질 전북쌀 만들기 나선다

2014년까지 미곡종합처리장에 5억 투입

단백질 함량 측정 장비 지원해 밥맛 관리

오는 11월부터 양곡관리법의 품질표시 사항 중 '단백질 함량 표시'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단백질 함량 측정 장비를 지원, '밥맛좋은' 전북쌀 만들기에 발벗고 나선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도내 10개 미곡 종합처리장(RPC)에 총 5억원을 투입해 쌀 품질관리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보급되는 품질관리 장비는 쌀의 품위를 측정하는 '외관 분석기'와 밥맛을 결정하는 단백질 함량을 측정하는 '성분 분석기'로 쌀 품질을 종합적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는 첨단장비로 지원된다.

분석항목은 수분, 백도, 품위, 단백질, 아밀로스 함량 등 가지에 이른다. 단백질 함량표시는 ▲수(6.0% 이하) ▲우(6.1~7.0%) ▲미(7.1이상) ▲미검사(단백질 함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밥맛은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는 쌀 품질관리 장비 지원에 따라 RPC 품질관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뿐 아니라 단백질 함량을 상시로 측정 관리할 수 있게 돼 '밥맛 좋은' 전북쌀 생산과 쌀 품질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단백질 함량 분석 서비스 확대를 위해 농관원 시험연구소와 9개 지원에 '단백질 켈달 자동분석기'를 설치하고 119개 사무소에 단백질 신속측정기를 보급해 내년도까지 쌀 단백질 표시율을 100% 완료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시 보건복지부 공모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선정

정읍시가 보건복지부 주관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66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10개 사업분야를 추진, 6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방침이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에게는 꿈을,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노인에게는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업'을 기치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